

01 교회소식

생명의 빛 전하는 우림북

성경 복음 메시지를 담은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전 세계에 유통하는 우림북이 올해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9

막달라 마리아의 선 (2)

막달라 마리아는 옥함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과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드렸다.

03 기획특집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시나요?

영적인 호흡 기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본다.

04 간증

국내외 지교회도 '할렐루야'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이스라엘 라파 하진 성도와 진주중 중이염을 치료받은 순천 조경아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586호 2013년 6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영혼의 참된 양식, 책에 담아 전 세계로

### 2013 '싱가포르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에 이재록 목사 저서 전시

싱가포르만민교회(담임 황핑핑 선교사) 후원으로 우림북이 지난 6월 5일부터 10일 까지 싱가포르 선택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싱가포르도서전'(Singapore Book Fair)에 참가했다.

이번 도서전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150개 출판사가 참가해 교육, 정기간행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전시했다. 우림북(www.urimbooks.com)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중국어판 17종과 영어판 28종을 전시판매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목사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는 방문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가장 많이 판매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히브리어, 아랍어, 타밀어 등 51개 언어로 발간돼 기독교뿐 아니라 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가톨릭 국가 등에도 보급되고 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한 관결 흉배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으로(출 28:30) 빛은 곧 하나님 말씀이며 생명을 의미한다.

우림북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 발간을 시작으로 1987년 5월, 영혼 구원을 위해 설립됐다. 그 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일곱교회』 등 생명력 있는 말씀은 물론, 성도 신앙간증집, 신앙 칼럼모음, 아동 및 학생교재 등 다양한 신앙서적을 발간해 왔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비롯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전 세계 영혼들에게 공급하고자 다국어 번역·출판과 전자책 출판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제도서전, 미국 북엑스포 아메리카, 중국 베이징 국제도서전, 영국 런던 국제도서전 등 해외 우수 도서전에 참가해 다국어 저서를 홍보했다.

53개 언어 245종에 달하는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필리핀 등 해외 20여 개 출판사와 협력



을 체결해 전 세계에 출판·유통되고 있다.

한편, 우림북은 오는 6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책 전시회 '제19회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책, 사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총 20개국 500여 개의 국내외 출판사가 참가해 아동도서와 인문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신구간 도서들을 소개하고 특별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올해 주빈국은 인도로, 인도의 원서들과 관련 도서 전시, 한국-인도 출판 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주빈국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캐나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저자와의 대화', '인문학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팝업 북 스토리', '스토리 북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5회째 참가한 우림북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한국어 저서 87권과 53개 언어로 번역·출판된 저서 245종, 43개 언어로 제작된 242종의 전자책을 선보인다.

우림북 부스는 인도 마리나 해변에서 연 인원 3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201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화보와 함께 전 세계 유통 및 번역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한 아이패드(iPad), 아마존 킨들 파이어(Kindle Fire)를 통해 우림북 전자책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으며,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요원도 배치한다.

관람 시간은 6월 19일(수)~21일(금) 오전 10시~오후 7시, 22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23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막달라 마리아의 선 (2)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처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37~38)

이 생겼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날만 손 짚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샅바느질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귀한 향유를 준비했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성껏 준비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본 순간 ‘여기는 너 같은 죄인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향한 마리아의 사모함의 향이 너무나 승했기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열어 주고 말았지요.

집 안에 들어가자 저만치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자한 모습,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 주실 수 있는 그 자애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너무나 고귀한 분이시기에 감히 앞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이르자 마리아는 눈물이 더욱 복받쳤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고귀한 발을 적시고 있었지요. 태어나서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도 맛보지도 못하고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품어 주실 듯 사랑이 가득한 그분이 지금 자신 앞에 계신 것입니다. 갑작스런 마리아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 의아해했고 방안에는 마리아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가? 왜 저러는가?’ ‘아니, 저 죄인인 여인이 망측해라!’ 하며 저마다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하염없이 울던 마리아는 몸을 구부려 머리의 수건을 벗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어 그 위에 입맞추기까지 했지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발이 깨끗할 리가 없었지요. 물도 귀해서 제대로 씻지 못하니 당시 예수님의 발도 마찬가지였

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법인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 위에 입맞추기까지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함부로 머리를 내놓고 다니지도 않았습니 다. 그렇게 귀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온전히 낮아지는 겸손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겠다. 치료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조종해서 나쁜 일을 하게 하는 못된 여인으로 간주했지요. 예수님만 아니라면 당장 그녀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쫓아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은 자신의 마음과 진실을 알아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실 것이기에 상관없이 있었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예수님만은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뜻한 바를 주저함 없이 행했지요. 곧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 드린 후,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 2.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린 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한 사랑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은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몸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일지라도 옥합을 깨뜨려야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위나 체면을 개의치 않고 생각과 이론의 틀도 깨뜨려 온전히 자기를 포기할 때에만 이러

한 헌신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옥합은 아주 좋은 그릇이라 해도 향유를 담은 용기에 불과합니다. 귀한 것은 향유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 드린 향유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향유는 대체로 값이 비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가 부어 드린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그 값이 삼백 데나리온에 달했지요. 일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삼백 데나리온은 거의 1년 내내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으로 쉽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 졸이며 먹을 것조차 아껴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마음의 진실한 정성을 드렸다는 것을 뜻하지요.

다시 말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모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 기만을 기다렸다가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지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 다.

또한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나온다는 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합이 상징하는 것은 몸이요, 이 몸은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벗어 버릴 때만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육체의 소욕을 벗어 버림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한 정성을 내보이며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 사함을 받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 건강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됐지요. 무엇보다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붙좃았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린 데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1.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며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고 고통받으며 삶의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 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너무나 마리아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분을 만난다면 이 철학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시티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올바른 기도, 세 가지 기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딤후 4:5).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오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해 봄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 POINT 1

###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도하는가?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므로 기도를 올리면서 순간에 하나님 뜻을 깨우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우쳐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기도, 도와주시는 기도가 돼야 한다. 이러한 성령

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즉 말씀을 듣고 명심해서 내 안에 양식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깨우쳐 주실 수 있다.

가령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 임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기 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서 참을 것도 없는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찌르고 욕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 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신다. 오래 참지 못한 모습, 상대가 나를 미워할 때 감정 품었던 모습 등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 일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떠올려 주신다. 따라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 POINT 2

###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구하는가?

예수님 앞에 소경 바디매오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이때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답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에게 물으셨고, 소경은 눈 뜨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정확하게 아뢰었다(막 10:46-52).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며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막 9:17-27).

만약 사업을 하다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는데 “알아서 도와주세요.”라고 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할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죄악을 버릴 때에도 단순히 “시기 질투 버리게 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면 “거친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기 원합니다. 농담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남의 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등 버릴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일상언어로 충만하게 하는 ‘마음의 기도’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하는 ‘방언기도’를 병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한다(고전 14:14-15).

## POINT 3

###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온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늘어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떠한 선의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선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기에 선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에 선을 쌓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말과 행동이 쌓여야 선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쑤부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창피하다. 민망하다. 속상하다.’ 생각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도가 아니다.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했기에 자녀가 온전한

가운데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 사랑의 기도를 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다.

또 연단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변화시키는 기도로 감사의 기도가 돼야 한다. 혹여나 한탄과 슬픔, 자책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성령의 감동함 속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6 June 2013.6.16~6.22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3-17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8-12
- 성령의 이혹가지 열매 1-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9
- 창세기 강해 100, 14-18
- 육체의 결여 1-5
-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GCN TV 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4-8 [이수진 목사]
- 자기 자신을 알라 [이미영 목사]
- 7년 환난 [이희진 목사]
- 하나님의 사랑-영의사람 2 [이희진 목사]
- 감사의 조건 1 [김수정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5-9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9-10, 13, 17-18
- GCN 간중 스페셜 2-3, 21-22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합대성회 3
- 독일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2, 16-18
- 찬양과 경배 [3] 40-45, 65-66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8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아들 내외와 함께한 리따 하진 성도와 남편 마르코 하진 성도

#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 행복합니다”

# “진주종 종이염이 완치됐어요”

## 리따 하진 성도 (이스라엘 아쉬도트만교회)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모욕과 멸시 속에 살았지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청춘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는 아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이민 간다니 몹시 걱정 됐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의 결정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1991년,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 후 실망과 허탈함 속에 살던 중 문득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지요. “어머니의 모든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바로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말씀은 세계 생명의 양식이 되어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1991년 12월, 구소련이 붕괴되고 문호가 개방되자 많은 사람이 고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늘어나는 범죄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1997년, 급기야 저희는 아들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됐지요. 이듬해에 우리 가족은 아쉬도트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지요. 아들 올렉 하진 목사는 돈을 벌어야만 했고,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진정 본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이스라엘에 선교차 방문하신 이재록 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치료와 권능의 사례들을 목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우리가 찾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박사님은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이스라엘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이로 인해 2008년에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이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에는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지요. 박

사님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셨고, 놀라운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암, 관절염, 당뇨 등 갖가지 질병을 치유받았으며, 휠체어와 안경을 버리는 등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참으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어렵던 이스라엘 기독교 선교가 반전돼 목회자들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으며, 사회 소외계층인 메시아니 주(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7세 고령이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MIS(만민국제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록 박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믿음의 분량』 등을 항상 책상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구역 모임 시 애용합니다. 저서들을 통해 깨우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체험을 하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사랑해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재록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경아 집사 (순천만교회)

2011년 10월, 재채기를 하는데 왼쪽 귀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진주종 종이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악화될 경우 뇌에까지 영향을 받아 사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지요.

때마침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희선 목사님이 순천만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에 감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후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웅웅거리며 답답해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제 자신을 발견해 변화되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에게 불편해했던 마음, 섬김 받고자 했던 마음, 내가 옳다는 생각과 강한 고집 등을 떠올려 주셨지요. 저는 회개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뒤 상경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 지난 5월 4일 병원 검진 결과, 진주종 종이염이 완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고 수술 할지라도 후유증이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진주종 종이염을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길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거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